

尹 “한일관계 개선 속도”... 기시다 “대화·협력 의견 일치”

尹 대통령 “12년만에 서틀외교 복원
미래 협력 위한 유익한 발걸음 되길”
기시다 총리 “양국 관계 진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복원된 서틀외교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5월 일본 이시카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서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는 두 달이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 많다”며 “지금 한일관계 흐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과거 양국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협력과 공존은 양국 공동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이시카와현의 위로 메시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함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두 달도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미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G7(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12년만에 현직 日총리 현충원 참배

기시다 총리, 도착 직후 현충원 이동
대통령실 잔디마당서 환영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한 첫 일정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와 배우자 유코 여사는 이날 정오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후 현충원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현충원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현충원으로 입장하다 멈춰 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태극기 옆에는 일본 국기도 함께 게양됐다.

기시다 부부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례한 후 묵념했다.

이어서 방명록 앞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된 방문 문구에 ‘岸田文雄(안전문웅, 기시다 후미오)’ 서명을 했다. 방문 문구는 ‘The Visit of His Excellency Kishida Fumio Prime Minister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Ma

y 7, 202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2023년 5월 7일)’이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장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의장대의 경례를 시작으로 일본 국가와 애



방한 일정을 시작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뉴스1

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의 장대를 사열했다.

이어서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소인수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청사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박정익 기자

10th KOREA READING FESTIVAL

읽는 사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양특례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

본축제 일산호수공원
2023. 09. 01. — 09. 03.

연중 고양시 전역
2023. 02Feb — 12Dec